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1년
2022년 12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77 호

종단 노인요양시설 불사의 대장정에 오르다

총령 법공 예하 회사 40억원 상당 부지 1천 8백여 평에 '서원은 중생, 성취는 부처님의 뜻, 주춧돌 하나를 놓는다는 마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403, 403-1번지 대지 1천 8백여 평 부지에 노인요양시설건립 불사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좌)시설부지 사진 (우)총령 법공 예하

“서원은 중생의 뜻이요, 성취는 부처님의 뜻이니 씨앗을 뿌리고 주춧돌 하나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지난해 7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및 교도를 위한 노후복지시설건립을 발원하며 총령 법공 예하가 회사한 40억 원 상당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403, 403-1번지 대지 1천 8백여 평 부지에 시설건립 불사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지난 11월 24일 총령 예하를 비롯한 총리원장 우인 정사와 총무부장

록경 정사, 재무부장 승원 정사 등 제20대 총리원 집행부, 종의회 의장 법상인 전수와 부의장 서령 정사, 사감원장 법일 정사, 대구경북교구장 법상 정사 등 종단 주요소임 승직자들과 제16대 총리원장을 역임했던 지성 정사가 포함 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답사 후 '(가칭)대련리 복지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시설 건립의 시작을 사실상 가시화했다. <관련기사 2면>

총령 예하는 당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당부하면서 종단 안팎으로 사실상 비공개로 회사 과정이 조용히 이루어졌다.

이후 종단으로의 부지 명의 귀속과 대지의 용도 변경 등 행정적 절차를 위해 종의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공표됐으며, 지난해 추계 강공회 자리에서 승단총회를 빌려 공식화됐다.

총령 예하는 이날 “우리 종단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쉽 없이 발전해왔는데 자체 요양원 하나 없다는 것이 교도들에게 미안하고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교도 및 일반인을 위한 요양원이 건립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총리원장 우인 정사는 “오늘은 발대식,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날이다.”고 전제하고, “총령님이 대지를

회사하신 지 벌써 1년 6개월 이상 지체가 된 상황이지만 복지시설 건립사업이 한 두 해 걸려서 될 사항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걸려야 될 사업이니만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정리하고 알차게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원하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추진위원회의 부지 첫 방문과 회의를 계기로 종단의 역사와 위상에 걸맞은 여법한 직영 노인요양 시설 건립에 종단 사부대중의 귀추가 주목될 예정이다.

취재 김상미 기자
정리 박재원 기자

종단 발전 밑거름 되기를 서원

'반야회' 추계 관불, 새 회장에 지공 정사



중생교화의 대 사명으로 일평생 응맹정진 하다 기로원에 든 스승들의 모임 '반야회'가 추계 관불을 다녀왔다.

총령 법공 예하를 비롯한 기로 스승 12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지공 정사가 주관하는 가운데 덕광 정사가 주관하는 가운데 덕광 정사와 서강 정사의 안내로 사흘간의 일정이 진행됐다. 동참 스승들은 한탄강, 태봉대교 등 경기도 북부 일대를 관불하며 종단 발전과 교화 발전을 위한 서원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 스승들은 또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7일에는 시험이 시작되는 8시 40분부터 수험생을 위한 불공을 함께 올렸다.

이번 관불에서 스승들은 지난

해 우승 종사의 입적으로 공석이었던 반야회 회장에 지공 정사를 선출했다. 지공 정사는 제8대 중앙총의회 의원, 대구·경북 교구장, 유지재단 감사, 사감원 부원장 등 종단의 주요 요직에서 봉직했으며, 2014년 기로원에 진원했다. 아울러 사무장에 서강 정사(실지사 주교)를 임명하고 현직 스승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공 정사는 “코로나로 외출이 어렵다가 오랜만에 스승 간에 수행을 점검하고 친목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며 “퇴임은 했으나 우리는 모두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서원하며, 앞으로도 종단 대소사에 함께 동고동락 할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불교총지중 사무직 채용 알림

공통자격요건	학력: 고졸 이상
지원자격	경력: 무관(신입도 지원 가능) 기타필수사항: 1종 보통운전면허, 운전가능자 우대사항: 문서작성 우수자
근무조건	근무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근무일시: 주 5일(월-금) 09:00 ~ 17:30 근무지역: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역 2호선)
문의	02)552-1080

종/조/법/어

신의로서 벗을 사귀고 어진사람을 질투하지 말며, 강한자를 겁없이 제어하고 약한자에게 자비하여 침해하지 말라.

지 면 안내

- 5면 이달의 법문/승원 정사
- 8면 정성준 교수의 밀교인물사
- 9면 교도수행체담@/김정애 교도
- 10면 생명살림경전이야기(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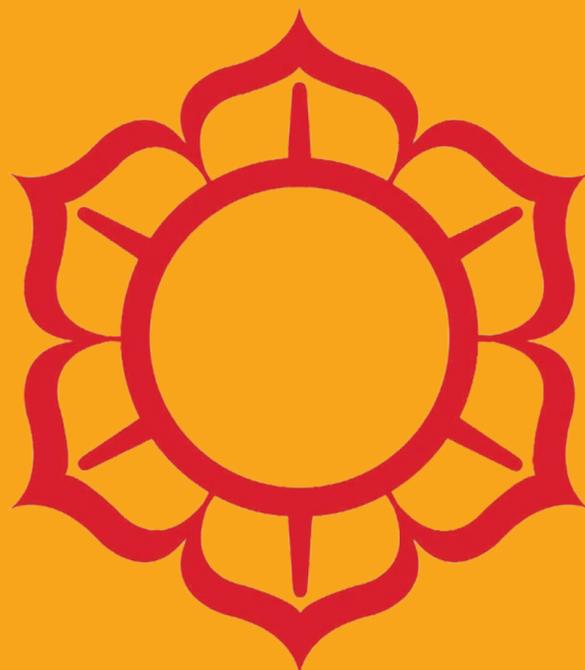
총기 51년 창교절 기념법회 안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1년 12월 24일(토)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종령 법공 예하 말씀 주요 내용

교도들 노후에 의지할 곳으로

종단 발전과 교화를 위해 노인 요양 시설 필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다. 요양병원, 요양원이 붐비기 시작할 때, 사원 건립보다는 우리 교도들이 노후에 마음 놓고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종단 발전과 교화를 위해서도 훨씬 필요한 일이고, 종단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이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

포항 대련리 부지에서 처음 열린 ‘대련리 복지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자리에서 종령 법공 예하는 회사의 의미에 종단 발전과 교화를 위한 일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처음 마음먹었을 때는 우리 종단에 사회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기부(무주상보시)를 하려고 했으나 나름 알아보니 매우 절차가 까다로워서 종단으로 내놓게 됐다. 주로 현교에서 불사를 하면 모아놓은 것 없이 모연문, 권선문으로 교도들을 모아 진행한다. 직접 경험해 봐서 절집의 불사 형식을 잘 안다. 이 부지가 건립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회사 과정을 전하며, 땅에 대해서도 간단히 부연했다.

“1968년 경 할아버지가 물려주셨다. 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라 그럴 수 없었다. 지금 이 지역은 나도 못 알아 볼 정도로 상전벽해 되었다. 다행히 누구나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아울러 종령 예하는 염려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지목변경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어떤 방식이든 원력을 가지고 진심으로 불사를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 불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나의 회사의 뜻 보다 50년 종단 역사에서 새로운 불사를 위해 노력한다는 마음이 컸으면 좋겠다. 교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모아 강물을 이루고 큰 바다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령 예하는 “우리 딸한테는 전세 매물 하나 준 게 없는데 특히 미안하다. 가족들이 내 뜻을 잘 이해하고 도와줘서 고맙고 기쁘다.”고 마무리했다.

‘대련리 복지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첫 회의

지난달 24일, 주요 소임자 포항 부지 답사 후 계획 논의



종단 직영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가칭 ‘대련리 복지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첫 회의가 포항 대련리 시설건립 예정 부지에서 열렸다.

지난달 24일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한 통리원장 우인정사 등 종단 주요 소임스승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는 부지 답사 후 인근 모처에서 진행됐다.

불공으로 시작한 이날 회의는 종령 예

하 인사 및 기부 취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현재 부지의 개요와 운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앞으로 건립을 위한 계획과 회의체의 정식명칭 제정 및 발족 등에 대해 총론적인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문을 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뜻을 모으고, 우선적으로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종의회의장, 사감원장,

대구경북교구장과 종의회 의원 일부를 포함하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내년부터는 부지 연간 수입 전액을 복지시설 기금과 건립비용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시설 부지는 경북 포항 흥해읍 대련리 403번지와 403-1번지 소재하고 있으며, 각각 면적이 3,032와 2,989 평방 미터로 총 1,824평에 달한다. 지목은 참고 시설이며, 현재 경북공조이엔지, 유성싱크, 태형산업 등 10개 업체에 임대 중이다. 특히 부지 근처에 포항 인터체인지, 대련 인터체인지 등이 있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연구단지, 아파트 등 근처 45만 평의 땅이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령 예하는 서두에서 “30여 년 전부터 사회에 환원하기로 이미 결심해왔고, 80세 되던 해, 음력 설 즈음 기부하기로 결심했다.”며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대지인데 우리 가족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어서 가능했고, 이점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시 소회를 밝혔다.

포항=김상미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왕생성불 발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회장단이 이태원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부회장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난 11월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 삼귀의, 반야심경, 아미타불 정근 등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 제204차 이사회 개최

지난달 8일, 2022학년도 법인회계·학교회계 추경 심의



학교법인 관음학사(이사장: 우인 정사) 제 204차 이사회가 지난달 8일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개최됐다.

이사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참석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2학년도 법인회계 1차 추경심의와 학교회계 3차 추경심의를 마쳤으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선도원 전수와 법일 정사에 대해 이사직을 연임하고, 자석사 지현 전수를 신임 감사로 선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권근태 사외감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부산=박재원 기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부산 정각사, 순국선열 극락왕생 발원

11월 11일 11시, 죽비 11타 의식으로 추모



부산 정각사(주교: 범일 정사)가 한국전쟁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추모 행사에 동참했다.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턴 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원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일제히 묵념하는 추모 행사이다.

이날 정각사를 비롯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 스님)와 부산 주요사찰 40여 곳은 오전 해당 시간에 일제히 범종, 목탁, 죽

비 등 법구를 11타 하고 묵념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 추모의 날과 더불어 호국불교를 염원한 전통의식인 2022 팔관회 공식 행사를 회향하는 날로 신성한 불음으로 고통 받는 중생의 번뇌를 벗게 하고 모든 중생의 영혼과 순국선열의 왕생극락을 발원해 의미를 더했다.

'턴 투워드 부산'은 2020년 제 14회 추모 행사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정각사 주교 범일 정사는 "우리나라 호국불교의 대표 종단으로서 교도들과 함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또 팔관회의 핵심 가치인 호국을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

김상미 기자

바람직한 후원

지혜의눈

후원 대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규정 불필요 어떠한 집착도 없이 돕는 무주상보시 해야

최근에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란 단어가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는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곤경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묘사하여 동정심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말합니다.

동정심을 유발할 정도의 생활 모습이란 것이 현실에서 일으키는 내용은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일례로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람이 그 어린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후원을 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후원하는 분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일정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후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는 몸짓으로 볼 수 없을까요? 더구나 그 어린이가 피아노 학원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배경이 알려지면서 결국 후원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난"이라는 기준에 맞춰 행동한 것이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생활은 어떠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못미치는 "가난한" 모습이 더 많은 후원을 가져온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 바로 빈곤 포르노입니다.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로는 입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쟁고아를 위해 실행한 해외입양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탈바꿈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지만 이런 잘못된 행위를 막기위해 후원행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혹자는 그런 행위를 "가난한" 사람의 의존성을 키워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합니다.

다. 그럼에도 불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다보면 당연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불이(不二)라는 개념같은 것들이 대 표적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모두 개체적 사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부정하는 듯한 불의 개념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비효과와 같은 현대 물리학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계의 실상을 상의상존(相依相存)의 연기론(緣起論)으로 설명하는 불교의 세계관이 단순히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태(現實態)를 나타내주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불교는 후원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먼저 비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후원을 이끌어내려는 자선 단체의 태도를 비판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후원자가 후원 대상은 어떠해야 한다는 규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것이고, 무주상(無住相) 보시(布施) 즉 집착함이 없이 도와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후원한다는 것이 또다른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무수한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 판단이 옳은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기부하고 그리고 잊어야하고, 기부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소유를 헐어서 다른 이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부하는 돈이, 물건이 여전히 내 소유의 끈으로 이어져 있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방하착(放下著)! 칼럼리스트 김태원

총지사,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한발짝

사원 내 숙박 쉼터 제공, 편의 시설에 힘쓸 터

부산 서울 총지사(주교:목경 정사)가 교도편의를 위해 사원 내 숙박 쉼터를 제공한다.

총지사 내에는 현재 총 일곱 개의 방이 있다. 서원당 1층 다섯 개와 거실과 화장실을 포함한 2층의 방 두개다. 단 1층의 경우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총지사는 이 공간 중 승직자와 교무 이용 시설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여

행 교도를 위해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출장이나 시험 등 목적이 있어 상경할 경우도 주교와 상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총지사는 유휴공간을 우선적으로 교도들에게 개방하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숙박을 포함한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수연 전수는 "교도들이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사원에 머물며 바쁜 일상에 쉼터 한 번 쉼의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란다."며, "아직 충족할 만한 시설이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편의 제공에 더욱 신경 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용 문의 02-552-1080

내마음의 등불

자석사 도우 정사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마땅히 이렇게 육신을 관하라. 잘 치장한 임금의 수레 같다고.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얽착하나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나쁜 짓을 그만 두고 착한 일만 행하여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깨진 이의 교훈이다.

고통을 참는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고행이다. 깨진 이는 열반을 최상이라고 외친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는 성직자가 아니다. 남에게 슬픔을 주는 이는 고행자가 아니다.

〈불교총전 300P 『법구경法句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자석사 도우 정사님은 건화사 도관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종단협, 소속회원 종단 연수교육

코로나 후 8년 만, 유대와 역량 강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가 2014년 이후 8년 만이자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회원종단 연수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지난 달 9일부터 11일 2박 3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회원 종단의 소인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종단에서는 록경, 서강, 해광 정사가 대표로 참석

했다. 워크샵에서는 종단간의 유대와 실무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주제로 '등록문화재 등재', '코로나이후 사회변화와 불교계의 실천적 과제', '기후 환경위기와 불교계의 실천과 비전', '종교단체 법인 일반세율 특별법', '전통사찰 지정 관련' 등 주제를 다뤘다.

종단협, 기후환경위원 워크샵

지난달 21일, 상임위원 록경 정사 참석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가 지난 달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불교기후환경위원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샵은 협회 소속 20여 개 종단에서 40여명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종단에서는 총무부장 록경 정사가 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마음청정 지구청정'을 주제로 열린 워크

샵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행을 강조하는 강의와 불자행동 4대 실천 지침인 '비움' '바꿈' '살림' '미래'를 소개하며 위원들간의 포부와 의견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불교기후환경위원회 상임위원 록경 정사는 "인욕과 하심으로 우리 교도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위한 오늘의 실천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 55주년 맞아 기념식 거행

우인 정사 축사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한마음이 되어 달라'



종립 동해중학교(학교장: 송인근)가 개교 5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거행하고 명문사학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지난달 25일 교내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사장 우인 정사와 이사 록경 정사가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빛냈다. 우인 정사는 축사에서 "급격하게 바뀐 교육 환경과 여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낸 동해 교육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나

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성장해온 역사를 알 수 있듯이 큰 나무 같은 동해인 양성을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한마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근 교장은 기념사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직접 공부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느낀 시기였다."며, "자극심과 투철한 교육 철학으로 참된 교육의 길을 지켜오신 선생님들과 잘 따라준 학생들, 함께해준 학부모님

께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근속 30년을 맞는 김영생 선생이 교직원 표창을 받았으며, 대일장학회 장학금이 김지후(3학년), 박진근, 정승화, 박정문(2학년), 김시현(1학년) 다섯 학생에게 각각 1백만 원씩 전달됐다. 대일장학회는 지난해 전 총리원장 인선 정사가 동해중학교의 인재 불사를 발원하며 장학금으로 1억 원을 희사하면서 설립됐다. 대일장학회는 규정에 따라 불심이 돈독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해마다 5명 씩 선발하게 된다. 동해중학교는 1988년 불교총지종이 인수해, '불법을 생활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한다'는 교육 목표와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지도자가 되자'는 교훈 아래 인재 양성에 매진해오고 있으며, 모범적인 불교종립학교이자 명문사학으로서 내실 있게 성장해 오고 있다. 박재원 기자

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교직원 연수 성료

지난달 9일 본산 통리원, 센터장 등 종사자 50여명 참가



2022년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교직원 연수가 지난달 9일 본산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실시됐다. 10개 산하기관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연수는 종사자 역량강화와 소속감 고취를 목표로 커리큘럼을 완성했다. 상담심리 하현주 박사의 '감정노동, 정서전염에 대한 이해와 대처, 이완·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이어 스피치리더십센터 이성호 대표가 '행복의 시작은 생각, 행복의 끝은 말이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마음청정 지구청정

Pure Mind. Pure Earth

『기후 환경 위기 극복 불자행동 캠페인』 “생활속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비움

Simple Life

소욕지족 少欲知足 운동

물질은 소박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 적게 소유하며 검소한 삶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누리겠습니다. 적게 구입하고, 오래쓰며, 윤리적 소비로 살기
- 자연과 이웃 덕분에 살아감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연과 이웃의 은혜 알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베풀며 살기
- 본래 내 것은 없음을 알고, 나누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무소유와 나눔, 자비의 마음으로 불품과 배려의 삶을 살기
- 위가 아니라 옹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협동하며 공동체로 살기

바꿈

Changing Life

수처자주 隨處作主 운동

나를 바꿀 세상을 바꾼다

-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화를 다스리며 수행과 평화영상 생활화하기
- 쓰레기 제로의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우공양, 일회용품 사용금지, 비닐 플라스틱 사용절제, 농어촌 쓰레기줍기
-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자동차사용하기
- 채식위주의 식사와 발우공양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장려하며 소시하는 빈그릇운동 실천하기

살림

Saving Life

생명방생 生命放生 운동

우리가 살리면 우리도 살린다

- 동물을 보호하고 살리며,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대적 방생실천, 실처분반대, 동물권옹호, 미래세대권리 옹호하기
-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큼 나무심기, 산간제도 부활, 사찰숲가꾸기
- 농업을 지키고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지원지원, 밭밭가꾸기, 귀농귀촌지원, 농촌공동체만들기
- 개발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금지, 자연서식지 습지 보호, 생태과과기업 투자철회

미래

For the Future

자업자득 自業自得 운동

미래세대에게 미래 물려주지 않기

- 환경과 생태문제를 배우고 이웃과 더불어 실천합니다. 종단, 교구별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실시, 조직만들고 실천하기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사찰과 불교시설 태양광 풍력등 재생가능에너지이용, 넷제로(Net-Zero)실천
-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순환사회만들기, 전자구적인 문제해결에 참여
- 가난한 이웃과 난민,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난민지원, 공정부역,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총지종 대한불교대각종 대한불교보문종 제대안불교원효종 제대안불교일부선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유종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본원종 사)대안불교원효종 한국불교여래종 보국불교염불종 사)대한불교조계종
 사)대한불교법상종 재한국불교법문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화엄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이달의 법문

작은 것을 탐하여 큰 것을 잃는다



벽룡사 승원 정사

불교총전 375쪽에 '작은 것을 탐하여 큰 것을 잃는다'는 제목의 『백유경(百喻經)』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심이 아주 많은 부부가 있었다. 하루는 그들에게 떡 세 개가 생겼다. 부부는 떡 한 개씩 나누어 먹고 나서 나머지 한 개를 서로 먹겠다고 입씨름을 벌였다. 그러다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했다. 떡 한 개 때문에 종일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모두 훔쳐갔다. 그러나 부부는 입을 봉한 채 도둑이 하는 짓만 쳐다보고 있었다. 도둑은 그들 부부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아무 말이 없는 것에 용기를 얻어 그 부인을 범하려 했다. 그래도 남편은 말이 없었다. 참다못한 아내가 '도둑이야!'하고 고함을 치며 남편에게 대들었다.

"미련한 사내야, 그 떡 한 개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범하려는 것을 보고도 가만있단 말이오?" 그러자 남편은 "떡은 내 것이야!"하고 비로소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비웃었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조그만 명성이나 이익을 위해 큰 손해를 보면서도 잠자코 있다. 온갖 번뇌와 악한 도둑의 침범으로 좋은 법을 잃고 악도에 떨어진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기는 고사하고 출세의 길만 구한다. 그리고 오욕락에 빠져 큰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재난이라 생각하지 않으니 그것은 저 어리석은 부부와 같다.

현실에서 떡 욕심 때문에 강도가 재물과 부인을 범하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구비유경』은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경전이라 이 이야기의 숨은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떡'은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집착하게 하는 대상입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관념적 표현으로 돈, 명예, 권력, 가족, 건강 등이 해당됩니다. 지혜가 얕을수록 우리 행복에 있어서 이런 환경들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평생 이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한평생을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갖춰진다고 행복이 이루어질까요?

종조님께서는 '본체가 바르면 그림자도

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아! 좋아져라. 마음아! 좋아져라." 한다고 마음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아지려면 지금 알아지는 대상들을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좋은 마음을 위한 조건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면 번뇌가 줄어들고,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덜 동요합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 고요함이 지혜의 원인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더라도 '그려려니...'하십시오. 다 마음이 그려낸 것입니다. 마음이 좋게 보거나 싫게 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모양, 크기, 속도는 다 관념입니다. 우리의 앞이 다 관념입니다. 마음이 그려낸 것입니다. 알아차림 하십시오. 알면 관념이 약해집니다. 생각에 빠져있을 때 단지 "생각(번뇌)가 일어났구나"라고 아십시오. 아무리 가치 있는 생각도 단지 생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을지라도 실제 있는 것은 단지 어떤 맛일 뿐입니다. '맛있다. 비싸다.'는 것은 마음이 그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념들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고, 자유로우면 활발합니다. 산다는 것이 새롭고 늘 가치 있게

행복은 마음이 느끼는 감정, 좋은 마음은 탐진치 없는 마음
좋은 마음과 지혜가 우리를 편안케 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발라진다.', '불법이 체가 되고 세간법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불법'은 다 마음을 좋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닦는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과 종조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은 세간법의 성취를 최우선 과제로 기도합니다. 좋은 마음이, 지혜가 왜 '본체'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떡 때문에 재물과 부인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도 세간적 욕망 때문에 정작 중요한 마음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마음은 탐진치 없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도 마음에 탐진치를 없애는 것입니다. 마음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생각과 느낌 같은 대상에 집착할 때 마음은 자연히 탐진치로 반응합니다.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의 자연스런 마음 작용

느낌이나 생각을 다 사실로 믿게 되고, 믿는 순간 우리는 번뇌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그냥 마음이 또 짓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대일경』에서 '10연생구'라 하여 알아지는 모든 것을 아지랑이처럼, 물거품처럼 보라고 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앞의 실재는 다 공(空)하다고 했습니다. 실재는 '색성향미촉법', '색수상행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상도 다 실재는 보이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냄새 맡아지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대단할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그려낸 것이지 실재가 아닙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에서 실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앉아있다면 엉덩이 느낌이 실재이고 내가 앉아있다는 것은 마음이 그려낸 것입니다. 누가 내게 욕했다면 소리가 실재이고 아무개가 욕했다는 것은 관념입니다. 보인다는 것이 실재이고 색깔이나

느껴집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조건이 아니라 좋은 마음, 지혜가 우리를 편안케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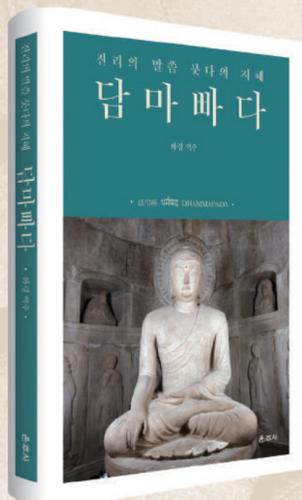
인생을 욕심에 빠져서, 화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아가다가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맙니다. 가족과 건강 같은 소중한 것들도 다 그런 연유에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항상 마음에 번뇌라고 하는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보초를 잘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번뇌가 주인 되어 우리를 여기저기로 끌고 다닙니다. 평생 번뇌의 노예가 되어 삶을 마감한다면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까요? 답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수행 잘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가지(加持)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
마음이 좋아지려면
지금 알아지는 대상들을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좋은 마음을
위한 조건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면
번뇌가 줄어들고,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덜 동요합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 고요함이
지혜의 원인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압제의 고통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4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북만주의 4월은 춥다. 겨울이 채 가지 않고 시베리아의 삭풍이 날카롭게 대지를 가른다. 봄이 곧 오리라 믿지만 옷깃을 여민 채 길을 걸어야 한다.

1944년 4월 20일, 대성사는 가족과 함께 봄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귀국했다. 귀국 직후인 5월 17일부터 대성사는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경력을 이어 군 서기로 근무할 수 있었다. 근무 부서는 적십자사 경남위원회. 경남적십자사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곳이었다. 1944년을 기준으로 조선 전역의 적십자 지부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된 곳이 경남위원회였다.

군 서기 신분이지만 강력히 청원해서 공출이나 징용 동원과 거리가 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업무를 맡았다. 적십자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구호 활동을 벌이고 의료 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대성사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원력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전쟁의 급박한 분위기는 밀양이라고 피해 갈 수 없어 일제는 평야인 상남 들만에 활주로를 만들고 미군 폭격을 피하고자 종남산 주변에 비행기 격납고를 만들었다. 평화의 들녘은 당장 전쟁의 최전방 전선으로 변했다. 농부들도 호미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고

“
사람뿐 아니라 국가와 집단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욕심은 눈을 가리고 지혜와 자비심을 거두어간다. 일제는 멸망으로 치닫는 중에도 야욕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일을 통해 대성사는 세상사를 내다보는 통찰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단파라디오_대성사 유품(역삼동 원정기념관 소장)



1945년 5월 20일 대성사 모습

1944년 하얼빈서 가족과 함께 봄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귀국 적십자사 경남위원회 군 서기 신분으로 인도적 사업을 전담

건설 현장의 인부로 끌려가 일해야 했다. 미군의 진격에 대비해 군용 시설을 밀양 곳곳에 건설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아붙여 지었던 시설물들이 완성되어 제대로 사용되기 전에 일본이 패망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 됐다.

1945년 대성사는 매일 숨죽여 들던 단파라디오 방송을 통해 주축국이던 이탈리아와 독일의 항복 소식을 듣고 있었다. 유럽 전선에서 승리를 거둔 미군 병력이 태평양 전쟁에 집중하여 남태평양부터 일본의 패전이 시작됐고, 일본 본토를 향해 폭격기들이 날아와 도쿄며 주요 항구들이 불바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겉으로 승

리를 장담해도 도쿄는 저항 한번 못한채 불타고 있었다.

조선 땅에서 일본은 패전의 순간까지 자신들의 승리를 선전하고 있었으나 대성사는 전황의 정확한 향배를 알고 있던 터라 주변에 조심스럽게 전쟁이 흘러가는 소식을 전하곤 했다.

특히 자신이 맡은 일이 적십자사 관계라 전쟁 막바지의 재난을 구하는 인도적인 업무에 더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전세가 기술자 일제의 압박도 강해졌다. 심지어 부녀자들까지 군사훈련으로 내몰았

고 쌀 한 톨 놓구릇 하나까지 공출을 명분으로 빼앗아갔다.

비행기 헌납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하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입에 발린 선전을 내세웠다. 그러나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은 미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연일 전함은 침몰하고 섬은 빼앗기고 전투기엔 조종사 대신 어린 학생을 태워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밀고 있었다. 제정신이 아닌 전쟁의 광기에 휩싸여 대책 없는 전선을 펼쳤던 것이다.

적십자 업무를 하면서도 전해오는 전황에 귀를 떼지 않았다. 특히 태평양의 주요 격전

지에서 미군이 파죽지세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곧 일제가 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은 더 이상 미군에 맞서지 못했다. 가공할 폭탄과 무력 앞에 고작 일본도를 빼들고 천황 만세를 외치며 무모한 돌격을 벌이다 희생될 뿐이었다.

사람뿐 아니라 국가와 집단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욕심은 눈을 가리고 지혜와 자비심을 거두어간다. 일제는 멸망으로 치닫는 중에도 야욕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일을 통해 대성사는 세상사를 내다보는 통찰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대성사는 일제의 긴 밤이 이제 곧 끝나리라는 것을 알았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것이고, 압제의 고통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드디어 모두의 희망대로 민족의 빛을 다시 찾은 광복의 날이 왔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1978년, 종단 최초로 결연관정 수계식 봉행

총지종의 역사

02. 정통밀교종단 '총지종' 창종 신행 및 교화활동 지원⑥

새롭게 교화 도량을 마련하고 밀려오는 교도를 맞이하는 바쁜 발걸음에 종단은 물질,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73년 7월 3일 용달과를 설치하여 전국 각지의 선교부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배포했다. 스승들은 강공회를 마칠 때마다 갖가지 교화용품 한 아름 들고 돌아가기도 하고, 교도들에게 나눠줄 총지의 법문과 다라니, 투명단종 용지 등을 트럭에 가득 싣고 전국 각지를 돌며 나눠주었다.

보다 조직적인 신행활동과 교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1974년 10월 22일 시교(試敎)와 전교(傳敎) 제도를 시행했다. 2세대를 제도한 교도에게 시교의 지위를 부여하고 5세대를 제도한 교도에게 전교의 지위를 부여하며 이들 연합이 3개 이상 모이면 법노장(法老長)의 지위를 부여하여 사명감을 고취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처음 법을 설한 것을 근간으로 삼아 전 교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화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시교, 전교, 법노장의 체계로 조직을 묶어 교도 간 상호부조와 생활상담, 수행상담을 진행하여 교화 활성화를 도모했다. 전교와 법노장에게는 수명관정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명을 수여하고 스승으로 발탁할 수 있는 가산점을 부여했다.

1978년 8월 30일 종단 최초로 결연관정 수계식을 거행했다. 첫 번째 관정수계인 만큼 법신불의 감응과 불공의 가피를 입은 초심 불자를 비롯해 전법교화에 적극 나섰던 법노장, 전교, 시교, 십일회사 교도, 신정회 간부를 망라해 밀법 인연을 맺어주었다.

경남지구 110명의 교도들은 정각사 삼매야계단에서 영광스러운 불명과 관정수계를 받았다. 원정 대성사를 전계(傳敎)아사리로 모시고 교수(敎授)아사리, 걸계(乞戒)아사



1975년 4월 23일 전체 스승 대상 전법관정 수계



1978년 8월 30일 결연관정수계, 정각사(수계자 : 110명)

용달과 설치로 전국 선교부에 교화 물품 일괄 배포 삼보공양체계 입각해 수입 지출 재정원칙도 분명히

리, 갈마(羯摩)아사리, 증계(證戒)아사리를 증명법사로 하여 총지종의 법을 전승하는 진언밀교의 제자로서 자격과 사명을 부여 받았다. 황토색 법의와 감색 가사를 수한 교도들은 배전의 각오와 결의로 종단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것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앞에서 맹세했다.

1980년 4월 22일 제15회 종의회에서는 밀교에서 식재, 증익, 경애, 항복법에 더해 다섯 종의 세간수행법으로 여기는 구소법(鉤召法,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법)을 시행하여 5세대 제도에 활용했다.

종단은 수입의 목적과 지출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운용했다. 1973년 6월 27일 창종 후 첫 종의회에서 회사(喜捨)와 보은시법(報恩施法)을 확정했다. 불보(佛寶)에 공양하는 회사금은 전당 건설에 사용했다. 승보(僧寶)에 공양하는 보은시는 삼보(三寶)를 비롯해 부모, 나라, 중생의 은

혜에 공양하는 것으로서 스승의 후생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1975년 10월 29일 종의회에서 법보(法寶)에 공양하는 정법시(正法施)를 경전 반포에 사용하기로 정함에 따라 삼보공양체계에 입각한 수입 지출의 재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불에 공양하는 자는 큰 복덕을 얻게 되고
법에 공양하는 자는 모든 지혜 증장하며
승에 공양하는 자는 일체 자량(資糧) 증장한다.**
<종조법설집, 불공>

회사, 정법시, 보은시의 원칙에 입각해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창종 초기부터 본산 건설을 위한 건립기금을 별도로 적립했다. 매월 교화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를 제외하고 통리원으로 헌상하는 사원 단시금(檀施金)의 20%를 본산 건립기금으로 적립했다.

* 밀교의 스승, 아사리(阿闍梨)
밀교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삼밀가지의 초월적 세계를 제자에게 전해주는 스승, 즉 밀교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고 청정한 계율을 지니며 제자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스승을 아사리(ācārya)라고 한다.

** 밀교의 전법의식, 관정(灌頂)
관정은 불문에 귀의하거나 계를 받을 때 물이나 향수를 정수리에 뿌리는 의식으로, 밀교에서는 전법의 인가와 특정한 부처님과 불연을 맺기 위한 절차이다. 관정이란 '정수리에 물을 끼얹는 것'으로 이 의식을 받아들여 밀교에서는 자격을 원만하게 갖춘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의 전승과 제자로서의 자격을 인가하는 데 관정의식을 행한다.

*** 결연관정, 수명관정, 전법관정
관정을 받으려면 제자는 관정을 받기 7일 전부터 불전에 성심껏 불공하고 허물을 참

회하며, 스승 또한 7일간 진언을 염송하고 관정도량을 세우고 성대하게 공양을 올린 다음 관정을 내린다. 결연관정은 승속이나 근기 등을 묻지 않고 밀교와의 인연을 맺기 위하여 행하는 관정의식이다. 수명관정은 입문하는 제자를 위하여 행한다. 계를 수지함으로써 진언행자로서 신구의 삼밀을 청정히 닦을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다. 전법관정은 제존의 삼밀법문에 통달한 제자에 대하여 스승이 아사리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서 이 관정을 받은 제자는 이후 아사리로서 법을 전해줄 수 있게 된다.

**** 삼매야계
삼매야(三昧耶, samaya)란 '여럿이 모인다, 일치한다, 규칙, 교리' 등의 뜻으로 삼매야계를 통해 스승은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여 성불하도록 이끌 것을 서원하고 제자는 부처의 가지력에 의하여 번뇌의 장애를 물리쳐 지혜를 얻을 것을 서원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는 아사리가 제자를 받아들일 때 먼저 삼매야계를 받게 하고 나서 관정을 내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관정을 받기 전에 반드시 삼매야계를 받아 삼보에 귀의하고 사중금계, 십중금계, 십선계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한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불상(佛像)과 상징

자연의 위대한 힘은 종교에 영감을 불어 넣으며 때론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용사(龍蛇), 수목, 태양과 같은 절대적인 힘에 대한 숭경과 간절한 바람이 결국 우주의 큰 힘으로 종합되어 탐묘, 연화, 운보 등으로 상징화되어 보편적인 신앙으로 승화되어 간다.

그러면서 우주의 위대한 힘을 석존을 통해 인격적으로 보여주려 하게 된다. 불상의 출현이다. 불상은 석존의 뛰어난 정신 내용을 인간의 형상에 빚대어 여러 가지 상징기물을 갖게 하고, 나아가 협사(脇士, 불상을 모시는 형태로 그 좌우에 세우는 보살의 상(像))를 수반하는 제불제존(諸佛諸尊)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불상은 단순히 석존 개인,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석존의 깨달음을 체득하고 부처가 된다는 깨달음 세계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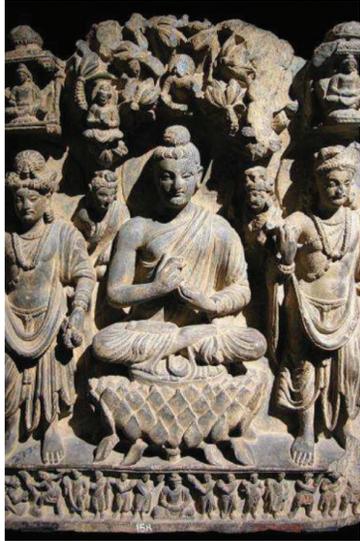
범천권청

범천권청(梵天勸請) 장면을 나타냈다는 스와트(Swat) 박물관에 있는 불타상(6~7C)에는 꽃으로 장식된 대좌 위에 불타석존은 결가부좌하고 선정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양 옆에는 합장작례(合掌作禮)하는 범천(왼쪽)과 제석천(오른쪽)을 거느리고 있다. 이것은 과거 우주의 절대 힘을 가진 범천, 제석천이 부처의 위대한 인격을 따르고 귀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부처의 위대한 인격을 범천 브라흐만, 제석천 인드라의 힘 그 자체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전통적인 신앙과 권위에 기반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석존의 깨달음은 우주 근원의 생명이나 다름없으며 석존에 대한 신앙은 보다 보편화되어 간다.

이러한 입장에서 페샤와르(Peshawar) 박물관의 불삼존상(佛三尊像, 2~5C)을 살

펴보면, 이 조상(彫像)은 가운데 불타가 연화좌에 결가부좌하고, 편단우견(偏袒右肩)에 승의를 입고 전법륜인을 맺고 있다. 좌우에 입상인 두 보살과 두 신을 거느리는 구도이다. 불타의 머리 위에는 꽃문양이 산개(傘蓋)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천인으로 보이는 작은 상이 있다. 불타를 향해 오른쪽은 미륵으로 보이는 상, 왼쪽에는 꽃줄(화강, 花綱)을 잡고 있는 보살이 있다. 불타와 이 두 보살 사이에는 제석천(왼쪽)과 범천(오른쪽)이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다. 보살 위쪽에는 원개(圓蓋, 둥) 당안에 작은 선정불(禪定佛)이 보이고 대좌(台座)에는 중앙에 선정불과 예배자, 오른쪽에 아파라(阿波羅) 용왕의 귀불설을 나타낸 구도도 되어 있다.

여기서는 범천, 제석천이라는 베다의 신들은 희미하게 모습을 감추고 대신 미륵, 관음보살을 배치하여 깨달음의 내용을 풍



불삼존상

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아리안의 자연의 부를 가져오는 용왕으로서 정신적인 부를 드러내고, 더구나 교화활동을 크게 드러냄으로써 불타의 뛰어난 인격을 다방면에서 보여주려고 한다. 이와 같이 신들, 보살, 이야기 등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방법은 만다라적 표현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신적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한다면 중앙의 불타 석존은 비로자나불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당초제사(唐招提寺) 금당의 제존은 중앙에 비로자나불, 양옆에 약사(오른쪽)와 천수관음(왼쪽), 네 모서리에 사천왕, 전면에 범천(오른쪽)과 제석천(왼쪽)을 배치한 양식이다.

또한 동대사(東大寺)의 법화당(法華堂, 三月堂)은 중앙에 불공견삭관음(不空羅索觀音)을 배치하고 양옆에 범천(오른쪽)과 제석천(왼쪽)을 거느리고 있다. 이 밖에 집금강신, 변재천, 길상천, 일광(日光), 월광(月



금강수와 연화수

광)을 거느리고 사천왕이 수호하고 있다.

이처럼 불타의 세계는 영원한 생명, 우주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표현 형태는 변해가지만, 베다 아래의 범천, 제석천의 신들은 엄연히 명맥을 유지하고, 또한 힌두의 신들을 습합하여 부처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신이나 힌두 신들이 한쪽 구석으로 내몰리면서도 의연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예는 태장만다라의 천부 제존이다. 현도태장만다라를 보면 중대팔엽의 존이나 중앙부의 존에게 눈이 빼앗겨 최외원(最外院)이라 불리는 주변부의 작은 제존들을 경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최외원에는 범천, 제석천을 비롯하여 일천, 월천, 성숙(星宿), 화천, 수천 등 위대한 자연의 힘을 보여주는 제천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제천이야말로 태장만다라의 토양으로서, 이 제천의 해명을 통해 비로소 태장

만다라의 특성이 밝혀지는 것이다.

태장만다라를 해명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야차귀신과 같은 부류와 부처님의 문제를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예를 보면, 그것은 아히짜뜨라(Ahichchhatra) 출토 마투라(Mathura) 조각상 불삼상(佛三像)이다. 쿠산 왕조 시대(2C~3C)의 것으로 뉴델리 박물관 소장품이다. 이 조각상에서 부처님은 두광배(頭光背)를 등지고 사자좌에 결가부좌하였으며, 부처님을 중심으로 연화와 금강저를 가진 이천(二天)이 배부된다. 부처님의 모습은 정수리에 육계(肉髻), 미간의 백호, 손바닥과 발바닥에 법륜이 새겨져 광배를 나타내고 천상에 비천(飛天), 자리 아래 보리수가 보인다.

연화를 지닌 천은 빠드마 빠니(Padmāpāṇi), 금강저를 지닌 천은 바즈라 빠니(Vajra-pāṇi)로 보인다. 마투라 불(佛)은 야차귀신과 같은 부류를 기초로 하므로 연화와 금강저를 지닌 신들은 귀신이지 베다의 범천, 제석천과는 계통을 달리한다.

고대 베다의 신에서는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천이 연화, 금강저가 제석천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들 논아리안의 신들의 성격과 습합하여 나타난 것이며, 나중에는 양자는 혼동하여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귀신 부류(논아리안의 신들)가 바탕에 있어서 연화와 금강을 가진 신이 나타난 것이다. 이윽고 연화는 자육(慈育)의 덕, 금강은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지력으로 나타나 태장만다라의 연화부, 금강부의 먼 원인을 이루게 된다. 또한 부처의 백호, 육계, 법륜 등은 『삼매야 만다라』의 여래중경장엄인(如來衆德莊嚴印)의 바탕이 되고 있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근대 티베트의 무종파운동 잠권 콩톨

인류의 역사를 통해 정치권에 무정부주의 운동이 있는 것처럼 종교도 무종파 운동이 늘 존재해왔다. 종교는 창조신화나 이에 버금가는 이론이 있게 마련이고 우주와 생명을 아우르는 보편적 진리를 생각하면 종교에 종파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차별성이 만들어내는 사고의 산물일 것이다. 인도불교를 포함해 티벳불교사에도 무종파의 원칙을 주장하던 스승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무종파 운동을 현실세계에서 주도하는 것은 적지 않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근대 티벳불교사의 인물인 잠권 콩톨(Jamgön Kongtrül, 1813 - 1899)은 본래 '잠권 콩톨 로되 타예'로 불교학자이자 시인, 예술가, 의사, 나아가 님마빠의 전통에서 숨겨진 경전을 발굴하는 매장사이기도 하였다. 불교학자치고 매우 박식하며 다재다능하였다. 특히 님마와 가규의 전통에서 활약하였으며 무려 90권에 이르는 불교의 저작을 남겼는데 특히 그의 역작인 『지식의 보배』는 불교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잠권 콩톨은 티벳 동부 캅지 지역의 룡갑에서 태어났다. 캅지 지역은 예전 델게왕국이 존재했던 곳으로 티벳대장경 가운데 델게판

이 유명한 정도로 불교사원과 연구, 유적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티벳의 전통신앙으로서 무교의 갈래인 빈교 사제의 환생자로 여겨져 3살 때 빈교에 출가하였다. 그러나 용독 풍족이라는 빈교 사제에 의해 훗날 빠드마삼바와의 수기를 받아 환생한 보살로 인정되었다.

잠권콩톨은 20세가 되어서 그의 탁월한 속성을 알아본 세첸 원통(1787~?)이라는 명승에 의해 님마빠의 세첸사원에 출가하여 본격적인 불교교육을 받았다. 1832년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은 이후에는 쉐방지역의 가르마가규 사원으로 옮겨 수학을 계속하였다.

사원의 활발인 가르마 뽕족 뽕뽕은 수계를 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다양한 불교의 분야를 섭렵했는데 현교와 밀교, 의학, 건축, 시, 산스크리트 등을 망라한 것이었다. 30세가 되어서 그는 티벳불교의 종파를 가리지 않고 무려 60인이 넘는 스승과 아사리들로부터 가르침과 관정을 받았다. 그러나 잠권 콩톨이 집중했던 것은 가규와 님마빠의 전통이었고 주로 마하무드라와 죽첸 수행에 전념하였고, 또한 조낭빠의 『갈라차끄라판뜨라』 전통을 전수받아 공부하고



잠권콩톨 진영

가르쳤다. 그는 감을 포함해 동부티벳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고, 종교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 행정과 외교에도 관여하였다.

잠권콩톨이 속한 자신의 전승 수도처는 쿤상 테첸 외셀 링으로 폐사지경에 이른 것을 다시 세웠다. 안정된 환경속에 잠권 콩톨은 유명한 저작을 다섯 작품을 남기는데 주로 '다섯 보전'이라 알려져 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영역될 정도로 그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아 도서관을 신축해 확장하였고 불교교학을 전반적으로 집대성 하였다.

잠권 콩톨은 특히 티벳에서 사라졌거나 절멸해가는 샤까와 가규, 님마의 전통들을 수집하고, 번역하고 되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종파는 티벳어로 '릭메(rigme)'라고 말한다. 그의 종파를 초월한 불교 전통의 노력은 당대에 그를 '무종파의 스승'으로 부르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는 모든 불교의 전통과 종파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보존에 힘썼기 때문이다. 잠권콩톨은 두 번째 수도원을 건설하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불교연구에 힘썼고 그의 전기는 그가 여행한 지역들을 기록해 두었지만 티벳 동부지역의 지역분쟁과 이에 개입한 청조와의 갈등으로 전란을 겪기도 했고, 87세 입적했다. 그의 제자인 네살 따시 최첸이 전기를 기록하고 이후

여러 대의 활발이 전생했으나, 잠권 콩톨이 이루었던 저작이나 학문, 수행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잠권 콩톨이 학문과 수행을 겸비할 수 있었던 것은 티벳불교의 전통대로 현교와 밀교를 고루 섭렵했기 때문이며, 오직 법만을 진리의 등불로 삼으라는 석존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계학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삼학의 전통과 그가 추구한 종교, 예술, 문학, 과학 등에 대한 다양한 섭렵은 인간 이해의 기초위에 종교의 지혜도 더욱 빛을 보여준다. 이것이 잠권 콩톨로 하여금 티벳불교사에 있어 그가 무종파주의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되게 한 배경이 되었다. 불교에 대해 경전과 종학에 대한 섭렵과 분류는 중국불교의 경우 교상관석이라 이른다. 이것은 학문적 영역의 소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황실과 지역사회와 얽여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한다. 신라의 원효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화쟁(和諍)과 회쟁(迴諍)의 이론을 폈다. 잠권 콩톨이 보였던 것으로 어느 종파의 우위를 강조하기 보다 인간사고의 다양성을 섭렵하고 관조하는 자세가 훗날 고정관념이나 사고의 오류를 피하는 인류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한다.

교도수행체험담 ②

차시 공덕의 가르침과 기쁨

덕화사 김정애 교도



저는 1982년 즈음 불교총지중에 입교하였습니다. 남편이 차를 사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성화사를 나가기 시작했던 동생이 형부를 위해 옴마니반메훈진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덕화사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였고, 저는 처음 정각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상구 주례동에 살았는데 정각사에 가려면 서면까지 나가 차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서원당은 보살님들로 꽉 차서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좋은 데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정각원 스승님이 계셨는데 첫날 스승님 법에 솔깃해서 호감이 생겼다고나 할까, 그 후 일요일마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불공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누가 내 신발을 신고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각사에서 슬리퍼를 내주셔서 신고 왔는데 슬리퍼를 내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살님은 절에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신발 잃어버리고. 지나면 알게 될 텐데 법문이다 생각하고..."

신발을 잃어 버려서 좀 찻찻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분의 말을 들으니 약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다니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그 후 부처님오신날을 보내고 정각원 스승님께서 구포에 덕화사가 생기니 거리가 먼 교도들은 그리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을 더 듣고 싶어서 가게 문도 닫고 얼마를 더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니 장사를 하면서 불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까운 덕화사로 가게 됐습니다. 덕화사에 와서는 처음으로 스승님께 차시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거의 매일 별일 없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때로 예상 밖의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됩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나 혹은 미리 예정된 큰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맞는 회사로 예방이나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 회사부터 해라, 큰돈은 아니어도 백 원짜리 하나라도 이쪽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넣고

그런데 그때 낯선 여성이 다가와서 갑자기 아이를 부르더니 말을 해줄게 있다, 엄마 종교가 뭐냐 물어보길래 '불교'다 했다는군요. 그러자 그 여성이 그러면 그렇지, 버스 기다리지?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차가 와서 데리고 갈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인가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정말 승용차가 한 대 앞에 서더니 운전자가 어디 가냐고, 자신은 대구까지 가는데 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간식거리도 나눠 주고 대화도 나누며 기차역까지 바라다 주었습니다. 내일 입대를 한다고 하니 차비까지 줘서 받아왔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훈련소에 함께 가면서 차 안에서 들려준 얘깁니다. 엄마한테 말을 안 하면 꺼림칙하고, 말하면 엄마가 너무 붕 뜰까봐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기쁜 말을 전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대 가서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면 옴마니반메훈을 찾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지만 그 막내아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믿음도 강하고, 차시법을 잘 따릅니다. 이 인연공덕인지 몰라도 잘 살고 있고, 멀리 살아도 엄마인 저와는 늘 살갑게 지내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중에 입교하여 차시 공덕을 배우고, 또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차시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겨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옷겨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범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實地)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중조법설집 제2장 수행편 제3절 범시와 보시 중>

부처님께 참회해라 전했습니다. 큰 아들은 시큰둥하게 듣는 것 같았는데 막내아들은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날 학교를 다녀온 막내아들이 기분이 좋아 들어오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오늘 살았다, 손바닥에 불이 날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사정인지 숙제를 못해갔습니다. 마침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앞에서부터 숙제 안 한 학생들을 큰 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죽었다 싶어서 백 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머니에 옮겨 놓고 눈을 감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숙제 잘하겠다고 빌었습니다.

아들 차례가 되었는데 그 때 뒤에 애들이 갑자기 떠드는 바람에 선생님이 조용히 안 하나 소리를 지르며 아들 책상을 탁 치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그런 거는 부처님이 다시는 안 봐준다, 초보자니까 봐줬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일이 있던 뒤 아들은 아마도 차시를 꾸준히 하는 듯했습니다.

한번은 또 막내아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 날인데, 내일 군대 가야하는 애가 꼭 만날 친구가 부대에 있다고 면회를 하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마 시간이 늦어졌나 봅니다. 날이 어둑어둑 해지면서 차가 끓길 듯해 걱정이 되던 차에 차시를 했습니다.



최상의 수행 방법 인욕(忍辱)

'마시멜로'는 초코파이라는 과자 사이에 들어있는 젤리 같은 설탕이다. 어린아 이들은 마시멜로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다. 몇 년 전 이 마시멜로를 주제로 브라질 작가가 쓴 <마시멜로 이야기>가 번역·출판되어 한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 스텐퍼드 대학의 월터 미셀 박사는 마시멜로를 가지고 4~6세인 6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박사는 실험에 참가한 4~6세의 아이들을 각 방에 앉혀 놓고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주며 말했다.

"애야, 밖에 나가지 말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도 말아라. 그리곤 여기 가만히 앉아서 이 마시멜로를 지켜보거라.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려 준다면 내가 그 보상으로 마시멜로 과자를 한 개 더 줄게."

이 말을 남기고 박사는 밖으로 나갔다.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 치웠다. 나머지 3분의 2는 끝까지 기다림으로써 한 개의 마시멜로를 더 받았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일은 다음이다.

14년 후 박사는 예전에 마시멜로 유혹의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아보았다. 당시 마시멜로의 유혹을 잘 참아낸 아이들은 대부분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뛰어났고, 정신적 인지 능력과 학업성적도 뛰어났으며,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으로 자라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발표된 후속 연구에서는 30년 후의 건강상태(체질량 지수 기준)도 더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고 먹어 치운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짜증을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곧잘 싸움에 휘말렸으며, 몇몇 아이는 문제 청소년이 되어 있기도 했다.

이 실험의 결론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

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다.

불교의 가르침에 보면 최상의 수행 방법이 인욕(忍辱)이라고 배웠다.

가르침의 사례를 여기서 돌이켜 보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라후라(부처님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와 사리불(부처님의 으뜸 제자)이 있다.

이 두 제자가 길을 가던 도중, 종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리불이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제자인 라후라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자, 폭행을 당한 사리불이 이렇게 말했다.

"라후라야, 분노와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대해야 한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수행자는 참는 것이 최선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자는 인욕(忍辱)하는 사람이다. 이 인욕(忍辱)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성자가 되는 것이다."

사리불의 가르침처럼 분노와 원한을 참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욕(忍辱)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대중의 삶도 마찬가지라. 인욕(忍辱)이 겸비되지 않으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고 대인관계도 어려울 것이다. 대학에 목표를 둔 학생이라면 그 원하는 대학을 향해 열정을 쏟아 공부해야 할 것이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자 목표를 둔 사람이라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타타기보다 한발 한발 정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세상의 이치란 절대 한 순간에 완성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길과 다르다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유혹의 시간이 오히려 성공의 길로 가는 데에 더 지체하게 만든다. 그 유혹을 견뎌내야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유혹을 견뎌내고 자제력과 의지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0월 21일 ~ 1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 : 7668610
우리는행 : 122-177171-13-104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14 columns: Donor Name, Amount, Date, Donor Name, Amount, Date, Donor Name, Amount, Date, Donor Name, Amount, Date, Donor Name, Amount, Date.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s to the Buddhist Welfare Foundation.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⑭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길 원함

선남자여,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바세계의 비로자나여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불가설불가설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시되, 자신의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자신의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고, 자신의 피로써 먹물을 삼아 수미산만큼 경전을 쓰셨듯이 법을 존중히 여기는 고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하물며 어찌 왕위나 도시나 시골이나 궁전이나 정원이나 숲 등 온갖 곳에서의 가지가지 행하기 어려운 고행이겠느냐.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불자로서 부처님을 따라 배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실적으로는 역사적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잘 기억해서 우리가 따라 배우려 노력하는 것이 상수불학원을 받아 지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부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따라 배우기 좋은 방법으로 불교의 4대 명절이 있다. 부처님오신날, 출가재일, 열반재일, 성도재일이다. 부처님오신날에는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부처님께서 과거 무수한 시간 동안 보살행을 닦으시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언젠가는 부처가 될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된다. 출가재일에는 부처님께서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실 때를 생각하며 따라 배운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애를 쓰고, 부귀영화를 갈구하는데 그 분은 그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셨다. 노부모와 사랑하

는 배우자와 갓태어난 자식과 공동체의 명운을 책임져야 할 태자의 신분으로 그가 버린 하나하나 얼마나 놓기 힘든 것들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성도재일에는 부처님의 성도를 기뻐하며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부처님의 수행법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초전법륜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45년간 법륜을 굴리신 것을 생각한다. 열반재일에는 부처님의 열반의 의미를 생각한다. 열반경에는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보여주시는 과정과 생사를 여의고 뛰어넘은 열반의 경지가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의 생애를 4대 명절로 정한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따라 배우게 함일 것이다.

하지만 보현보살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려 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각 상속하고 끊임없이 따라 배우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키거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발원한다. 그러니 1년에 4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잊지 않아야 한다. 사찰에서는 하루 4번 기도한다. 새벽예불과 사시불공 그리고 오후 미시기도와 저녁예불기도 이렇게 4번 기도하는데 우리도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 놓고 하루 4번 부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갖아보면 좋겠다.

부처님의 탄생계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개고 아담안지’라고 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고 통받는 중생을 편안케 하기 위해 오시 분이다. 불교에서 중생이 인간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고통받는 대

상, 그리고 편안케 해야할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못생김 나아가 모든 존재를 말한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출처] 자예경 Metta Sutta (숫타니파타1.8, Khp.9)

수행자는 이와 같이 못 생애에 대해 자애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한다. 보현행원의 아홉 번째 원인 항순중생원(恒順衆生願)에서 왜 그런지 까닭이 나온다. “어찌하여 그럴까? 모든 부처님께서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으시므로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발하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등정각을 이루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무상정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진리의 길을 바르게 나아가는 이여!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렇게 알지니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하면 능히 원만한 대비를 성취하며 대비심으로 중생의 뜻에 수순하므로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할 것이니라.”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에도 평등하지 못했다. 신분에 의한 차별이 있었고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었다. 부처님은 승가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셨다. 지금은 인권 의식이 높아져 원칙적으로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인간 이외의 생물 종에 대한 차별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족 같았던 가족이 이제는 공장식 축산업의 확산으로 생명이 아닌 단지 고기를 생산하는 상품으로 취급된다. 축산동물만이 아니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의 고통도 다르지 않다. 멸종위기 산양과 반달가슴곰이 사는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를 놓는다, 산악열차를 놓는다 하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흔하던 수많은 야생동물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맑은 물과 푸른 하늘을 우리 후손들이 다시 볼 수 있을까? 코로나로 3년째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고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기후변화와 생물대멸종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말타던데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작은 이익과 조금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자신의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고, 자신의 피로써 먹물을 삼으셨다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려는 불자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을 추구하며 단순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기후변화와 생물대멸종이라는 파국을 막기위해 물질소비를 줄이고 소육지족하는 불자의 삶은 너무나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자 불자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보현행원품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수인사, 김장김치 이웃에 자비나눔 신정회, 수인회 회원 노력봉사로 이어져



포항 수인사(주교:법상 정사)가 올해도 김장 김치 자비나눔을 이어갔다. 지난 27일 신정회와 수인회 교도들은 배추 250포기를 담가 이웃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50박스,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어르신 교도들을 위해 30박스, 특히 수인사 관할 동사무소에도 50박스를 마련해 나눠주었다.

석관실버, ‘추(秋)억을 찾아’ 나들이 11월 11일, 속초 명소 관불로 가을 정취 만끽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난달 11일 강원도 속초로 어르신들 총 84명과 함께 ‘추(秋)억을 찾아’ 힐링 나들이를 다녀왔다. 강원도 속초 외옹치항 돌레길, 속초해수욕장, 대포항 수산시장, 낙산사 등을 관람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동	지	기	도	아	킬	레	스	건
총	생	대	리	키				
하	총	렬	왕	만	리	장	성	
초			대	자				
			대	자	대	비	로	컬
								푸드
								세
								우
								러
								레
								타
								지
								마
								할
								바
								링
								스
								보
								슈
								바
								이
								처
								투
								문
								살
								타
								서
								방
								정
								*토
								도
								테
								트
								리
								스
								생
								기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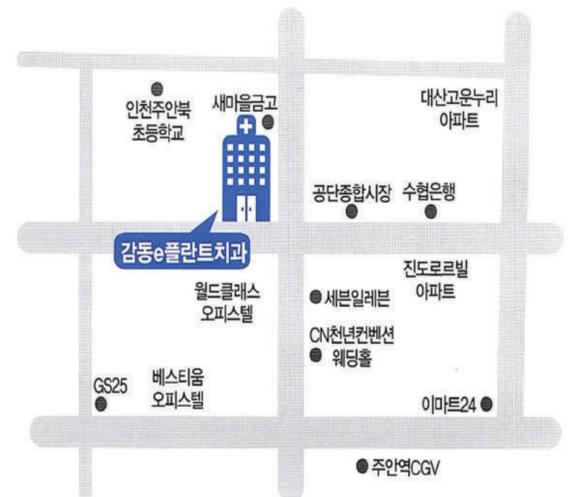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들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아쉬운 가을의 끝자락 관불로 원력 다지다

11월 19일, 총지사 경기도 파주, 수인사는 서울로



서울 총지사(주교: 룡경 정사)와 포항 수인사(주교: 범상 정사)가 각각 지난 11월 19일 관불로 교도들의 원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총지사는 룡경 정사를 비롯한 교도들과 물빛 풍경이 아름다운 파주의 명소 마장호수를 다녀왔다. 호수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수변데크와 220m의 출렁다리를 건너며 교도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높였다.

수인사도 범상 정사를 비롯한 교도 40여 명이 동참해, 83년 만에 전면 개



방된 청와대와 범상 스님이 주석하셨던 김상사 그리고 남산 한옥마을을 돌며 원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범상 정사는 “당일 새벽 5시부터 출발해 다시 도착하는 밤 8시 반까지 교도들이 한마음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모든 공양부터 간식까지 수인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셔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관불을 마칠 수 있었다.”고 교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가로세로 총/지/문/답

㉠		㉡		㉢		㉣	
			㉤				
		㉥			㉦		
	㉧				㉨	㉩	㉪
			㉫				
㉬			㉭		㉮		
			㉯		㉰	㉱	
㉲					㉳	㉴	*
		㉵					

가로 열쇠

- ①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 발원을 다짐하는 불교 의례, 팔죽 공양
- ② 발뒤꿈치에 있는 강한 힘줄,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 고사에서 유래
- ③ 고려 제 25대 왕, 칭기즈칸 후에 출신 황녀와 혼인한 고려의 첫 군주
- ④ 중국 역대 왕조가 쌓은 긴 성벽, 진시황제의 상징
- ⑤ 넓고 커서 끝이 없는 자비라는 뜻
- ⑥ 특정 지역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농산물
- ⑦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
- ⑧ 아프리카 봉사에 헌신한 독일계 프랑스 의사, 음악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 ⑨ 사찰 법당 꽃살문 장식의 토대
- ⑩ 불교에서 아미타불이 살고 있다는 청정한 국토
- ⑪ 퍼즐 조각 게임

세로 열쇠

- ㉠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 중국에서 귀한 약재로 알려진 버섯
- ㉡ 빌붙어 사는 벌레, 봉준호 감독 영화 제목
- ㉢ 조선시대 현왕의 할머니, 왕실의 최고 어른
- ㉣ 아프리카의 지붕으로 불리는 탄자니아 화산괴, 조용필 노래 제목
- ㉤ 겨울 레저스포츠 즐기는 장소
- ㉥ 지혜를 상징하는 아미타불 오른쪽 협시보살
- ㉦ 불교에서 여자 재가신도를 이르는 말
- ㉧ 색을 칠할 수 있도록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
- ㉨ 원피스로 된 여성 옷, 웨딩000
-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휴양지, 영화 사운드트랙의 배경
- ㉪ 24절기 중 귀뚜라미 등을 타고 오는 절기, 늦여름 더위가 물러가는 때
- ㉫ 무엇이 못마땅하여 때를 쓰며 조르는 일
- ㉬ 이룬 학자 밑에서 배우는 제자
- ㉭ 불교에서 자비행 실천을 위해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것
- * 점토를 반죽하여 500℃ 이상의 고온에서 만든 용기

만다라 합창단, 부산불교합창제 참가

코로나 이후 첫 무대, 매주 화요일 연습 재개



가장 수승한 최고의 법을 노래로 전하는 합창제가 부산에서 봉행됐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옥희)는 지난 11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대중에게 전하는 묘법연화의 노래'를 주제로 '2022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날 합창제에는 부산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안미옥 단장을 비롯해 김세화, 이정숙, 최경순, 정수민, 여순애 단원 등 5명이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로 참가해 음성공양을 올렸다. 이 자리에는 정각사 주교 범일 정사와 자행정 전수, 일진 정사, 진여 전수도 교도들과 함께 참석해 합창단원을 격려하고, 환희심을 더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활동이 멈춰졌던 만다라 합창단은 지난 9월부터 연습을 재개해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정각사 도량에 법음을 올린다. 올해 1월 새로 부임한 안미옥 단장은 “연습이 시작되면서부터 부산경남교구와 사원의 크고 작은 경조사에 음성공양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다시 재정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내년 합창제에는 만다라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참여할 계획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축하합니다

총지사 김재원 교도 아들 쌍둥이 출산 (11월 15일)
 화음사 강순란 교도 아들 이선민 군 결혼(11월 27일)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故 계유생 김도희 님 (11월 7일 입적, 성종윤 교도 시모)
 故 경자생 박현숙 교도 49재 (11월 18일 총지사)

총지스캐치

창종 50주년

지나온 50년을 뒤돌아 보며 다가올 50년을 생각해 보는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만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예』에 의한 진언 '유홍야호사'로써 국태만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곡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길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견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일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림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곡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윤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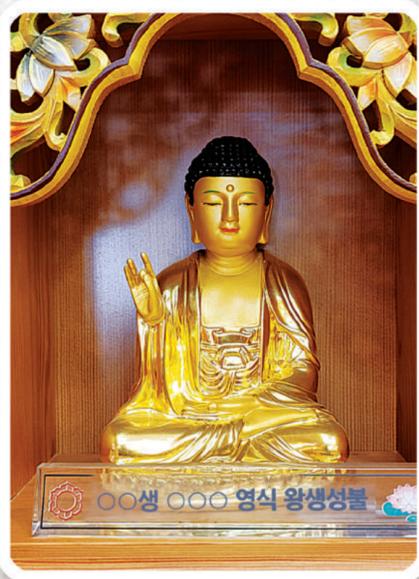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

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각사 득락전에는 극락왕생과 성불을 서원하는 아미타부처님과 좌우 협시 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영식(영가) 원불

조상영식, 조부모, 부모 등 영식(영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명복과 왕생성불을 개인 원불에 모셔 기원합니다.

영구불 1기당 100만원(부부에 한해서 한 불상에 모실 수 있음)

기제사 불공

설, 추석, 기제일 등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처님께 추천 불공을 드립니다.

소원·축원불

불상에 가족의 이름을 올려놓고 건강과 소원성취,
재난소멸 등을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축원불 1기당 10만원/1년)